

나주시의원들, 대농고 수의계약 이권 개입 '말성'

친족·특수관계인에 일감 몰아주기...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 50건 중 특정지역구에 26건 배정... "관행 문제없다" 주장도

나주시의원들이 나주시 수의계약을 따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 4억 592만원이다.

나주시는 읍·면·동에서 요청한 주민숙원사업들

가선거구 6건, 나선거구 26건, 다선거구 4건, 라선거구 14건을 배정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사업을 시의원들이 배정받아 친척이나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특수관계인들에게 나눠줘 말성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면허가 없는 데도 다른 사람이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횡포에 참여 기회조차 빼앗긴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라져가는 적폐로까지 불리는 '의원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가 나주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비가 500만~1000만원인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도 의원들이 커미션을 챙겨가면 남는 것이 없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들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잭팟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건설협회 나주시회에서는 해마다 2~3회 나주시장 면담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편법 운영 중단과 사업비가 적은 공사도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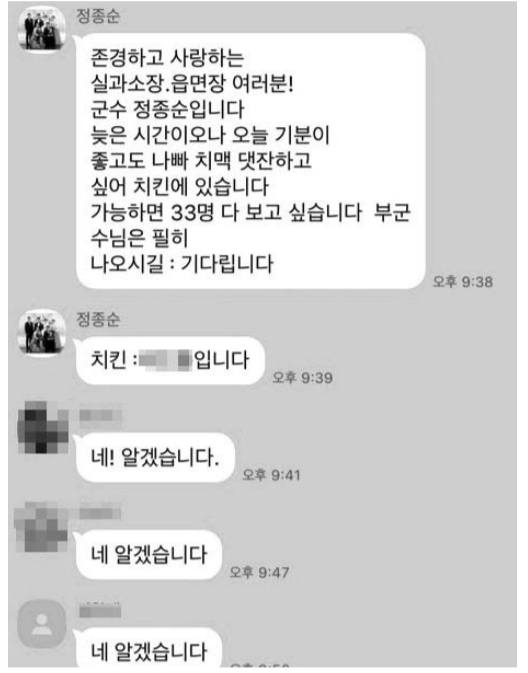
더구나 일부 시의원들은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의회 A의원은 "일감을 친척과 선거 때 도

움을 받았던 지인에게 몇 건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kwangju.co.kr



장흥군수 때아닌 '심야 충성 술판' 빈축

실·과·소·읍·면장 등 19명 참석 인사 앞두고 '충성시험' 의혹도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데, 전남지역의 한 군수가 심야에 간부들과 술판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40분께 정중순 장흥군수가 장흥군 실·과·소·읍·면장 등 간부 33명 전원이 참여한 SNS 소통방에 모두를 호출했다.

정 군수는 소통방에서 "오늘 기분이 좋고도 나빠 치맥 땀잔하고 싶다"면서 "가능하면 33명 다 보고 싶다"고 단체문자를 보냈다. <사진> 사실상 '호프집으로 모이랴'는 호출이었다.

이날 밤 참석한 간부는 총 33명 가운데 1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소통 차원에서 마련한 '번개 술자리'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정부 시절 관선 군수나 했을 법한 '충성 술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께 단행할 사무관 승진과 순환 인사를 앞두고, 군수가 충성 시험을 하느라 심야 술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군수가 보는 앞에서 A 서기관과 B와 C 사무관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추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팜파스 그라스 꽃단지 체험농장' 조성

새 농가소득 기대



강진군은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팜파스 그라스 꽃 단지 체험농장'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면 상저마을 일대 9만㎡(2만7000평) 부지에 지어질 팜파스그라스군락지는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무너진 현실을 감안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확충 사업으로 추진된다.

'팜파스 그라스'는 외래종 역사대로 키는 3m 남짓 자라며, 활모양으로 늘어진 잎들이 모여서 둥근 형태로 커다란 포기를 이루며 자란다. 수정이 이뤄지면 꽃이 풍성해지면서 모두 하얀색으로 변하는 데 이후 꽃에 색을 입혀 연핑크, 노랑, 연두, 하얀색 등 다양한 색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강진군은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 (주)비아이비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팜파스 그라스 꽃단지 체험농장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꽃단지 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은 대구면 상저마을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은 대구면 상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며 작물재배, 농산물 가공과 함께 판매까지 담당한다. 여기에 (주)비아이비가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에 정식 명칭을 부여했다. 출렁다리가 있는 좌측은 '출렁길', 우측은 '숲속길'이다. <장성군 제공>

장성호 수변길 새 이름... 왼편은 '출렁길'·오른편은 '숲속길'

최근 조성한 장성호 수변길의 이름이 생겼다. 댐 초입에서 호수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편은 '출렁길', 오른편은 '숲속길'이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호 왼편 출렁길은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을 부여했다. 두 개의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길은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풍광과 시원하게 드린 나무 그늘을 품고 있다.

숲속길은 이달 초 정식 개통했는데 두 개의 출렁다리가 어우러진 장성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장성군은 수변 백리길 사업으로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34km 구간을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계획 구간 3.7km 가운데 2.6km에서 공사를 완료했다.

1만2000ha 규모로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장성

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1976년 조성했다.

나무판자가 바닥에 깔린 완만한 산책로인 수변길을 2017년부터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하면서 관광지로 거듭났다.

두 번째 출렁다리가 개통한 이달에는 주말 평균 7000~8000명이 다녀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갈등보다 배려와 긍정을"... 시골마을에 '칭찬게시판' 눈길

담양 창평면, 다중시설 5곳에 설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듯, 칭찬이 기적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담양의 한 시골마을에 누구나 칭찬할 수 있는 '칭찬 게시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 창평면은 최근 이웃 간 사랑을 실천하고 마을일에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주민을 칭찬하는 '칭찬 게시판'을 제작해 다중시설 5곳에 설치했다.

이 게시판은 반목과 갈등보다 배려와 긍정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평면이 추진하고 있는 '칭찬 고을' 창평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올 연말까지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등에 게시될 예정이며 많은 추천을 받은 주민에게는 후원받

은 물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창평면은 새로운 '창평 르네상스'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문화조성 운동인 '창평인의 10대 자랑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창평인의 10대 자랑거리는 정장차 질서지킴이, 들녘 청결히 관리하기 등 기초질서 확립부터 이웃 간 나눔과 칭찬 문화 확산과 같이 살고 싶은 창평 만들기에 일조하는 주민 참여문화 조성 운동이다.

조용상 담양 창평면장은 "나비효과에서 볼 수 있듯 창평인의 10대 자랑거리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다보면 긍정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모두가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창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